



### 삼국유사 인물학 유행(遊行)

청년 미륵 즉 미륵반가사유상 모델은?

# 화랑과 원화로 세상에 나뉜 불법 흥포

#### 1. 젊은 실타르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전 나의 참다운 면목은 무엇인가?’, ‘저 별레는 왜 세에게 먹혀야 만 하는가?’, ‘태어나지 않고 죽지 않는 영원한 대자유인의 길’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젊은 시절의 실타르타는 이러한 질문들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 의자에 앉아[半禪] 한쪽 손가락을 턱에 괴고 사유(思惟)하는 젊은 미륵의 모습은 젊은 실타르타의 모습과 겹쳐진다.

그의 모습 속에서 서울 남산 자락에 앉아 자신의 미래를 고뇌하는 젊은 대학생들의 모습과도 겹쳐진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또는 ‘천 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는 메시지가 장안의 지가를 높이는 지금 젊은 실타르타의 모습이 청년 미륵과 겹쳐지는 까닭은 어디에 있을까? 나는 지금 일본 응국대학에 교향강의를 와서 나라(奈良)시대 이래의 옛 수도인 교토(京都)의 광릉사 법당에 앉아있는 미륵반가사유상과 한국의 수도 서울 용산 국립박물관에 앉아있는 국보 83호와 78호 미륵반가사유상을 나란히 떠올려 보고 있다.

『삼국유사』「탐사」편 ‘미륵선화 미시랑 진자사’ (彌勒善花 未尸郎 眞慈師) 조목에는 미륵대성이 화랑(花郎)으로 화현(化現)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진자왕(眞智王)대에 흥륜사의 승려 진자(眞慈, 眞慈)는 늘 법당의 중심인 미륵상 앞에 나아가 발원하여 맹세하였다. “바라건대 우리 대성(大聖)께서 화랑으로 화작(化作)하여 세상에 나타나시어 제가 항상 대성의 얼굴을 가까이 뵈고 받들어 시중들게 해 주옵소서.”

그 정성이 간절하고 지극하여 기도하는 마음이 날로 두터워졌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경전 속의 미륵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미륵대성이 화랑으로서 이 세상에 출현하도록 지극히 기도하고 있는 대목이다.

즉 미륵을 도솔천에 상주 설법하는 보살로 머물러 있게 하지 않고 신라 사회로 청해 내려서 국산화(國土化)로 현실화하여 신라 사회에 참여하게 하는 지점이다. 그리하여 진자를 비롯한 신라인들은 미륵의 화현을 신라 사회 속에서 실현시키고 있다.

어느 날 밤 진자의 꿈에 한 승려가 나타나 말하였다. “네가 웅천(公州) 수원사(水源寺)로 가면 미륵선화(彌勒仙花)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가 꿈에서 깨어 놀라고 기뻐서 그 절을 찾았다. 열흘 걸리는 길을 걸어가는데 한 걸음[一步]마다 한 번씩 절하면서[一禮] 그 절에 도착했다. 절 문 밖에서 복스럽고 섬세하게 생긴 한 소년이 있었다. 어여쁜 눈매[眼]와 예쁜 눈썹으로 그를 맞이해서 작은 문으로 모시고 들어가 객실로 안내하였다. 진자가 울가면서 읊하며 말하였다. “그대는 평소 애조금도 알지 못하는 터에 어찌하여 이렇게 은근하게 대접하는가?” 그 소년이 말하였다. “저 역시 서울 사람입니다. 덕이 높은 스님께서 먼 길을 걸어 이곳까지 오시는 것을 보고 위로했을 뿐입니다.” 이윽고 소년은 문 밖으로 나가더니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다.

진자는 그저 우연한 일이라고 여겼을 뿐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다만 절의 승려들에게 지난밤의 꿈과 여기까지 온 뜻만을 이야기 하였을 뿐이다. 또 말하였다. “잠시 이 절에 머무르면서 미륵선화를 기다리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나?” 절의 승려들은 그가 말하는 정황이 허황하다고 생각했지만 활달하고 은근한 그의 정성을 보고 말하였다. “여기서 남쪽 부근으로 가면 멀지 않은 곳에 천산이 있는데, 옛날부터 현인과 절인들이 머물러 살았으므로 은미한 감응이 많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진자는 그의 말을 좇아 천산 아래에 도착하였다. 산신령이 노인으로 변하여 나와서 맞이하며 말하였다. “여기에 무엇하러 왔느냐?” 진자가 대답하였다. “미륵선화를 보고자 합니다.” 노인이 말하였다. “얼마 전에 수원사의 문 밖에서 이미 미륵선화를 보았는데 다시 누구를 더 찾았는가?” 진자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급히 달려 즉시 원래의 절로 돌아왔다.

#### 2. 미륵선화와 선화공주

한 달쯤 있자 진자왕이 이를 듣고 조서를 내려 진자를 불러 그 사유를 묻고 말하였다. “소년이 스스로 서울 사람이라고 했는데 성인은 빈말을 하지 않는다. 왜 성인을 찾아보지 않는가?” 진자가 왕의 뜻을 받들어 많은 사람들을 모아 동리와 거리를 두루 다니면서 그를 찾았다. 단정하게 화장을 하고[斷粧] 눈썹이 수려한 한 소년이 영묘사의 동북쪽 길 옆 나무 아래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婆娑] 놀고 있었다. 진자가 그를 보자 깜짝 놀라며 말하였다. “이 분이 미륵선화입니다.” 곧 나아가 물었다. “나의 젊은 어디입니까? 아름다운 성씨도 듣고 싶습니다.” 남이 대답하였다. “저의 이름은 미시입니다. 어릴 적에 부모를 모두 잃어 성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이에 가마[肩輿]로 모시고 대궐에 들어가 왕을 뵈었다. 왕이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여 국선(國仙)으로 봉하였다. 그가 여러 자제들과 화목하고 예의와 풍속을 교화시키는 것이 보통 사람과 달랐다. 그의 풍류가 세상에 빛난 지 거의 7년이 되자 홀연히 간 곳이 없어졌다.

진자가 미륵선화를 애대개 그리워함이 매우 심했다. 그런데 그는 미륵선화의 지비로운 해택을 흠뻑 입었고[飲沐] 맑은 교화를 받아서 스스로 늙어지고 정성을 다하여 도를 닦았으나 만년에는 그 또한 끝마친 데를 몰랐다. 때문에 눈실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미(未) 자는 미(彌) 자와 음이 같고, 시(尸) 자는 ‘역(力) 자와 모양이 비슷하므로 그 근사한 것을 따서 서로 바꾼 것이다.”

#### 금동미륵반가사유상은 정도 선남선녀 상징

#### 일본 목조미륵반가사유상에도 같은 사상 드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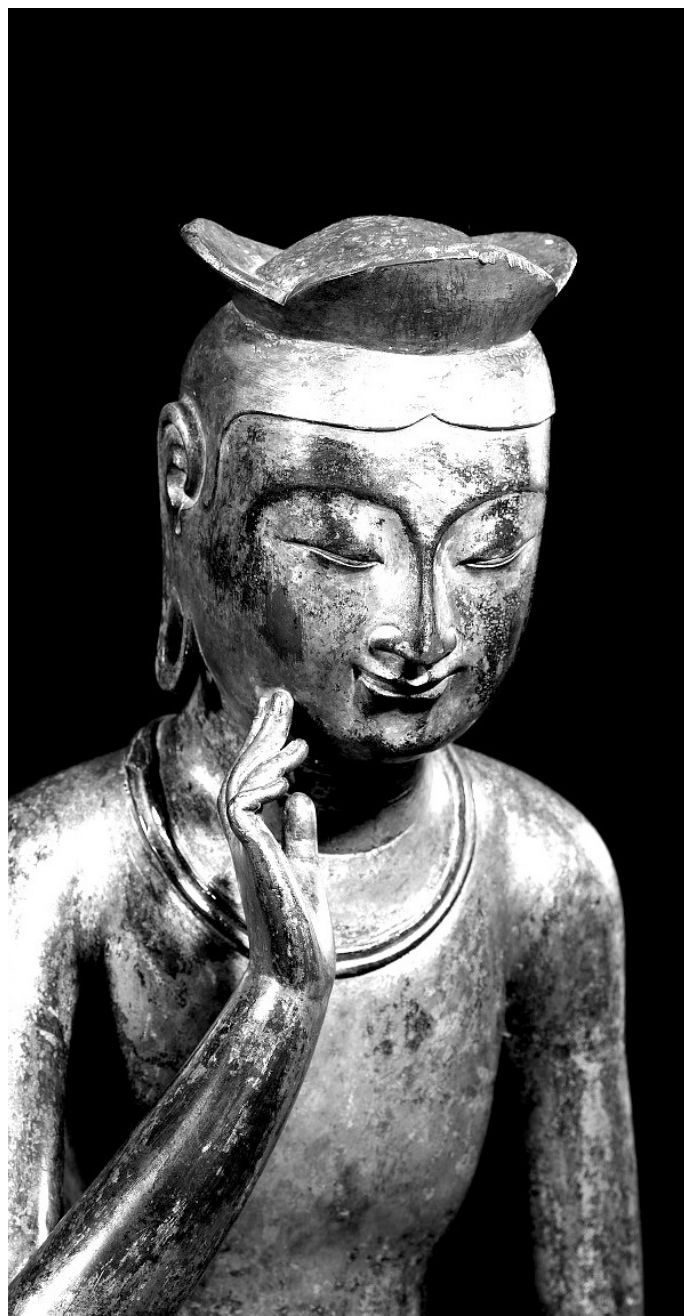
#### 미륵신앙, 현실적 정토사상 반영

#### 미륵선화에 백제·신라 이상 담겨

미륵대성이 유독 진자의 정성에만 감응한 것이 아니라 이 국토와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이따금씩 나타나는 것이다. 지금도 나라사람들이 신선을 일컬어 미륵선화라 말하며 남에게 중매하는 사람을 미시(未尸)라고 하는 것은 모두 진자가 남긴 풍습이다. ‘선화(仙花)는 ‘선화(善花)와도 통하며 ‘예쁜 꽃’을 의미한다. 진평왕의 셋째딸 ‘선화’ 공주 역시 ‘예쁜 꽃’이었다. 결국 신라와 백제의 ‘미륵 세상 만들기 프로젝트’에 동참한 청춘 남녀들은 모두 ‘원화’와 같은 아름다운 미소녀이자 ‘화랑’과 같은 미소녀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신라의 흥륜사 승려 진자가 백제의 중심부인 공주 수원사까지 찾아가 미륵선화를 모셔간 이 사건은 승려로 변장한 서동이 권모를 써서 공주를 빼돌려 맞아 온 이야기 구조와 겹치고 있다. 때문에 이 두 사건을 하나의 계기 선상에 놓고 신라와 백제 사이에 벌어진 ‘미륵 쟁탈전’으로 보는 연구 시각도 있다. 즉 앞서 진자가 모셔간 미륵선화를 서동이 되어서 온 것과 같은 의미로 보고, 이를 그가 민심을 얻어 백제의 왕으로 오르게 되는 계기로 보고 있다. 진자가 찾아온 미시랑은 하생한 미륵이었다. 그는 신라에서 국선으로 7년을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종적 없이 사라졌다. 이즈음 신라에서 건너온 선화공주 앞에 미륵 삼존이 출현하였다. 무왕과 선화는 미륵 삼존이 머물 가람을 창건하여 이 땅 위에 미륵의 세상을 활짝 열 희망을 품었다. 이처럼 『미륵화생경』에 입각한 미륵화생 신앙은 ‘예쁜 꽃’인 선화공주와 미륵선화와 겹쳐 얽게 하고 있다.

삼산관을 쓴 국보 83호의 금동미륵반가사유상은 일본 국보 1호인 광릉사 목조미륵반가사유상과 이미지가 겹친다. 그런데 두 사유상을 잘 들여다보면 이들은 모두 실제의 인물상이기보다는 이



국보 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현실 정토를 꿈꾼 신라인들의 모습을 대변한다.

상의 인물상처럼 보인다. 날렵한 손가락과 가냘픈 허리, 아름다운 눈썹과 고운 입술은 여성의 이미지와 중첩된다. 프랑크 조각가 로맹의 ‘생각하는 사람’의 이미지와 다른 젊은 수험자 또는 보살의 모델은 과연 누구일까? 청년 실타르타 혹은 청년 미륵의 이미지는 꽃처럼 아름다운 미륵선화 즉 선화공주와 겹치고 있다. 당시 신라의 진자왕과 백제의 무왕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비록 왕위에서 폐위가 되었지만 도화녀(桃花女)와 인연을 맺고 비형랑(非荆郎)을 낳은 진자왕은 진자를 통해 어떤 미륵선화를 탄생시키려 했을까? 그리고 백제의 무왕은 진흥왕 이래 시작된 진종설(眞種說)을 본격화시키고 신라 삼보(三寶)를 장안한 진평왕(眞平王)을 ‘벤치마크’ 하였던 것은 아닐까? 무왕은 선화와 결혼한 뒤 진륜성왕을 꿈꾸었다. 그리하여 그는 미륵을 통해 이 땅을 희망의 세상인 즉 미륵의 세상으로 만들려 하였다.

#### 3. 현실정토를 꿈꾸었던 신라인들

당시 삼국은 끝이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가야를 합병한 신라는 고구려와 연합하여 백제를 압박했고, 또 백제는 신라와 연합하여 고구려를 압박하기도 하였다. 신라의 진흥왕-진지왕-진평왕-선덕여왕은 백제의 성왕-위덕-해왕-법왕-무왕과 때로는 연합을 하고 때로는 전쟁을 하면서 제로선 게임을 하고 있었다. 이

시기 전쟁의 횡수는 국지전을 포함하여 년 50여회에서 150여회에 이를 정도였다. 이들 전쟁으로 인해 무수한 젊은이들이 죽어갔다. 상대국들에 대한 적개심 또한 적지 않았다.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서도 불교는 삼국인들 사이에서 신봉되면서 정치와 문화 및 종교와 예술 등 여러 방면에서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백제와 신라는 『미륵화생경』에 입각한 미륵화생신앙에 의지하여 왕권을 공고히 하려고 했다. 때문에 통치자들의 전륜성왕의 이미지 확보는 필수적인 전략이었다.

삼국의 백성들이 체감하는 전쟁의 고통은 극심하였다. 이들은 불심에 의지하여 이 고통을 이겨내려 하였다. 백성들은 타방정토를 염원하면서도 차방정토 즉 유신정토를 꿈꾸었다. 이들은 한편으로는 아미타불을 지송하면서 현실정토를 염원하였고, 한편으로는 미륵불을 지송하고 용화정토를 염원하였다. ‘남백월산 이성 노힐부득 달달박박’ 조목에서 엿볼 수 있는 것처럼 이들은 미타정토와 미륵정토를 동시에 꿈꾸었다. 부득은 관음보살의 안내로 미륵불로 화현하여 미륵정토를 구현하려 했고, 박박은 미타불로 화현하여 미타정토를 실현하려 하였다. 반면 ‘효소왕대 죽지랑’ 조에서는 술종공(述宗公)이 죽지랑(竹直郎)에서 길을 뉘던 거사가 꿈에 나타난 뒤 죽자, “필경 거사는 내 집에 태어날 것이다”하는 시체를 묻어주고 그 무덤 앞에 돌미륵을 만들어 세웠다. 이 상은 다시 태어날 새로운 생명을 위하여 세운 미륵상이었다.

또 ‘생의사 석미륵’ 조목과 ‘낙산 이대성 관음 정취 조신’ 조목에는 꿈을 꾸고 돌미륵을 발굴하는 이야기가 실려 있다. 이러한 기록들에는 이상의 꿈을 꿈속에 내버려 두지 않고 현실로 끌어내 오려는 신라인들의 사유방식의 투영되어 있다. 월명의 ‘도술가(兜率歌)’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영응적(靈應的인) 신앙이 나타나고 있다. 경덕왕 때 하늘에 두 해가 나타나 열을 동안 함께하였다. 왕은 월명사(月明師)를 청하여 ‘도술가’를 지어 산화공덕(散花功德)을 짓는 의식을 거행하였다. ‘도술가’의 내용은 꽃을 뿌리며 꽃으로 하여금 도솔천에 계시는 미륵대성을 맞아 모시라는 의미이다. 결국 왕은 월명에게 차와 수정염주를 주자 동자로 현신한 미륵이 나타나서 가져갔다. 여기에서 우리는 미륵이 동자로 나타난 것은 천상(天上)의 보살을 지상인 신라의 현실로 끌어내린 것과 국가 행사의 신앙 대상이 미륵이었다는 지점에서 미륵의 위상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한편 ‘진표전간’의 미륵이 진표(眞表)에게 “너는 이것으로 세상에 불법을 전하여 사람들을 구제하는 방편으로 삼아라”고 하는 대목에서 신라 미륵사상의 현세이익적인 면을 엿볼 수 있다. 또 경주 남산 용장사(甬長寺)의 장유미륵존상이 주위를 도는 태현(太賢)대덕을 행해 얼굴을 따라 돌렸다는 것은 현세이익적 미륵신앙이 신라에 성행하여 늘 생활의 주변을 떠나지 않았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 그리고 신라의 미륵불이 남자로 현신한 관음보살의 도움으로 이땅에 현신하여 성도하였다는 남백월산(南白月山)의 노힐부득(勞劣夫得)의 이야기 또한 현실정토 내지 현세이익적인 미륵신앙이 성했다는 사실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나아가 노힐부득이 현신성도(現身成道)하였다는 것은 신라 미륵신앙의 필연적인 귀결이자 현실적인 신라불국토를 실현하고자 한 신라인들의 표현이며 현실정토사상의 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모습들은 ‘원화’와 ‘화랑’으로 이어지는 ‘예쁜 꽃’ 미륵선화에 대한 백제와 신라인들의 꿈과 이상이 지속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일 연, 『삼국유사』, 권상로 역주(동서문화사, 1978; 2007; 2010).
- 이병교, 『삼국유사의 종합적 해석』(민족사, 2005; 2007).
- 최완수, 『한국불상의 원류를 찾아서』(대원사, 2007).
- 정 인, 『불교도를 꿈꾼 미륵』(문화의 문학, 2012).



고영성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어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딱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 및 문의

블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010-5474-1345  
입금규좌 : 농협 100023-56-156761 (포명숙)

**수정기공 특강 안내**

신지식인 대한민국 정부인정 660  
2012년 신지식인 최우수상 수상

교 재 : 75,000원 특가 68,000원  
정기강의시작: 매월 첫째 일요일 오후 1시 30분~6시  
장 소 : 수원시 성균관대학역 주변  
모집인원 : 매회 8명 이내  
연 락 처 : 010-3463-7806  
홈페이지 : soojung99.pe.kr

**수정기공 창시자 김문기 원장 직강**  
온라인번호 : 농협 207176-51-204175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미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 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는 정에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져서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실법**  
똥통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끼여처럼 속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관이 막히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어도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순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월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월빙」을 치세요.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히 불 전 함**

원목 법탁

움직이거나  
털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돌발적인 정보로  
침입자, 100% 도주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원목 법상

**Naver 무인경보불전함**

서원불교 북 043-647-2378, 011-467-1472